

朝鮮朝後期에 있어서 近代意識의 擴大에 관한 考察

金 雲 泰

朝鮮王朝에 있어서 근대화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開化運動이 구체적 실천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은 19세기 後半의 開港을 계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 근대화운동의 문화적 기반으로서의 근대의식은 近世朝鮮의 兩班官僚支配體制의 모순의 확대속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封建社會가 거둬드는 外部의 침략과 압력, 그리고 오랜동안 西洋文物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가운데 붕괴되는 과정에서 自覺的으로 성장한 것이다. 여기서 開港을 전후하여 진전된 근대의식의 성장과정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근대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민족의식의 자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무릇 民族形成의 바탕을 마련한 新羅의 統一[A.D. 668, 文武王 8년] 이래 1300년에 걸쳐 진행된 民族形成의 과정속에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이라는 兩大外賊의 침략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兩亂을 계기로 하여 近代的 민족의식의 완전한 자각은 아니라도 소박한 형태나 민족의식의 성장을 보게 된 것이다. 倭胡兩亂 특히 壬辰倭亂에 직면하자 전국민의 모든 계급이 한 마당으로 外敵에 항거하는 민족의식에 불탔던 것은 특기할 만한 몇 가지 史話나 逸話만으로 실증이 된다.⁽¹⁾ 또 兩亂이 남긴 弊害가 극히 가혹했다는 史實로 미루어 보아 일반 민중들에게까지도 민족 관념을 意識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나아가서 이 倭·胡兩亂은 민족의식뿐 아니라 被支配階級の 일반 민중 의식의 자각을 동시에 자극하였다고 본다.⁽²⁾ 또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兩大亂은 西歐文物의 傳來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시기는 서양인의 동양 진출이 활발해진 직후로서 일본은 이미 그 조류를 타고 있었다. 일본보다 늦게나마 朝鮮도 처음으로 天主教와

(1) 倭亂·朝鮮人の 민족 의식과 민중의 自我反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민중 의식과 민족 의식은 英雄崇拜로도 나타나 宣·仁祖間에 盛行되었던 「壬辰錄」·「郭再祐傳」등의 軍談類와 洪吉童傳 小説은 그 대표적 예였다. 특히 「壬辰錄」은 李忠武公의 戰略, 西山大師·泗溟堂의 道術 등을 誇張하여 潤飾한 民譚이며, 洪吉童傳[光海君朝의 實學派의 先驅者인 許筠(1569~1618)]은 庶子인 主人公 洪吉童의 혁명 정신을 作品化한 것으로 兩班들의 僥倖과 토색질, 百姓들의 不平·指導階級에 대한 非難을 중심으로 하여 階級打破를 부르짖은 社會小説이었다.

(2) 그러나 壬辰倭亂은 일본에 대한 再認識과 敵愾心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民族意識의 鼓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나, 漢文化圈의 人尊王攘夷思想 다시 말하면 尊明思想을 結果的으로 助長한 점에서 韓民族主義 意識의 鈍化를 초래한 一面도 주목된다.

機緣을 가지게 되었고, 과학문명의 무기인 鳥銃⁽³⁾이 일본을 거쳐 들어왔고, 또 北京을 經由하여 유럽 地圖·西洋火砲·天文書·千里鏡·西洋風俗記, 번역된 基督敎書籍[李暉光의 Matteo Ricci著書 天主實義 紹介 등], 醫學·農藝·數學 등의 각종 書籍이 輸入되었다.

17·8차기에 이르러 더욱 심해지는 社會構成的 變動과 또 明·淸을 통하여 들어오는 西洋文物의 專來와 淸의 考證學의 영향으로 傳統的 意識構造와 封建社會體制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비판의 기운이 또한 성숙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在配的 兩班層에 의해 實學思想으로 나타났다. 實學思想의 根本精神은 소위 實事求是로 國家社會의 모순을 改革하려는 時代의 긴급한 요구에 副應하고자 하였다. 이 學風의 先驅者인 李暉光[1563~1638]·韓百謙[1552~615]등의 뒤를 이어 金堉[1580~1658]은 實學理論을 政治制度에 응용하고 大同法을 시행하여 庶民生活의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礪溪 柳馨遠[1622~73]은 田制의 根本的 改革을 비롯하여 教育·考試·官吏任命·官制·俸給·兵制 등 現實行政制度와 民生問題의 연구에 평생을 정력을 기울였다.⁽⁴⁾ 그 뒤를 이어 星湖 李瀾[1682~1764]은 土地兼併에 의한 貧富의 差를 방지할 목적으로 均田法을 주장하였고, 그의 學風(星湖學派)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門下에 많은 學者를 배출하였다.⁽⁵⁾

그 중에서도 茶山 丁若鏞[1762~1836]은 實學思想을 集大成한 先驅의 思想家로서 民主民本主義와 民意民權主義에 견줄 수 있는 近代思想을 제창하였다.⁽⁶⁾

한편 淸의 서울인 燕京은 당시 天主教의 東洋宣敎의 중심지로 西洋學藝의 傳授地가 되었다. 그 화려한 문화의 전성기에 使臣으로서나 隨行員으로 왕래했던 學者들⁽⁷⁾은 그곳 學者와

(3) 鳥銃이 우리나라에 傳來된 것은 倭亂勃發의 2년전인 宣朝 23년[1950] 日本國使 宗義智에 의한 것으로, 일본보다 47년이 늦은 셈이다. 이 武器의 輸入이 뒤떨어진 것이 倭兵에게 敗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종래 中國만이 唯一한 文明國으로 알고 中華에 대하여 小華로 自處自足해 오던 차에, 우리의 眼中에도 없었던 일본이 이미 鳥銃으로써 대표되는 西洋文明의 一端을 붙잡고 우리에게 임하니 바로 이 壬辰亂을 前後하여 종래의 兩國間의 強弱의 地位가 차차 顛倒되기에 이른 것이다.

(4) 柳馨遠著「礪溪隨錄」은「倭·胡 兩大亂을 겪은 당시 封建社會의 紊亂相과 腐敗相, 특히 貧血에 빠진 農村社會의 生活를 절실히 목격하고 체험한 著書로서, 어떻게 하던 制度의 缺陷을 是正하고 民生問題를 해결해 볼까 하는 憂國愛民의 念願에서 合理的으로 구상하고 摸索한」大著이다. 古典刊行會 1958, 東國文化社發行 序文 引用.

(5) 李瀾은 經世致用의 學을 주로 하면서 博學多彩한 學風을 일으킨 자로서, 天文·地理·律算·醫學의 書는 물론, 地圖說을 주장하고 中國을 통하여 輸入된 西洋學術에 관한 見聞에도 밝았다 [「星湖僿說」, 上·下, 京城文光書林 上·下, 昭和 4년 참조].

그의 經世思想은 李珣 및 柳馨遠의 제보를 발전시킨 變法思想家로서「법이 오래되면 폐가 생기고 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星湖僿說上 人事門「變法」)

그가 끼친 영향도 多方面으로, 즉 歷史의 安鼎福·韓致淵, 地理學의 李重煥, 國語와 音韻學의 申景濬[訓民正音圖解]·柳僊[諺文志], 經濟學의 丁若鏞 등을 위시하여 그의 門中弟子間에는 많은 우수한 學者가 輩出하여 南人系列을 지었다.

(6) 與僧堂全書로 전해지는 방대한 著述을 남기고 있으며, 그 중 經世遺表·牧民心書 등은 經世治民에 관한 綜合的 批判 및 改革案의 典據로 유명하다. 그는 淸代學術의 영향도 받고 있었다.

(7) 徐命膺·洪良浩[月溪]·洪大容[湛軒]·朴趾源[燕岩]·朴齊家[楚亭]·李德懋[雅亭]·柳得恭[惠

交遊하여 그곳 文物을 접하고, 淸의 考證學風을 배울 수 있었다. 이들은 淸나라에 대한 崇慕나 節義에 집착하고 丙子의 國恥를 언제나 분하게 여겨 양값음을 할 마음을 갖거나 또는 淸國을 오랑캐로 언제나 멸시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 터이니 淸國을 배우자는 소위 北學論을 提唱하였다.

그 先驅者인 湛軒 洪大容은 天文·曆學·數學者로서 「林下經綸」「鑿山問答」등의 著書를 통하여 科擧的 自然觀에 의거하여 地轉說과 變法的 經世思想을 展開하였다.

燕岩 朴淵은 「熱河日記」·「兩班傳」·「許生傳」등의 작품을 통하여 부패한 兩班支配層을 통박하고 北伐論의 虛妄을 辛辣하게 풍자하는 등 實學的인 풍조를 鼓吹하였으며, 楚亭 朴齊家는 이러한 北學論을 대표할 만한 作品「北學議」를 著作하여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 北學派의 두드러진 특징은 淸國을 통하여 배우려고 한 주요한 관심을 생산과 생활에 있어서의 「利用·厚生」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利用·厚生」의 논리는 生活로부터 유래된 觀念論的인 虛學에 빠지지 말고 利用과 厚生에 重點을 두고 生産과 生活에 密着한 實學을 추구하자는 것이다.⁽⁸⁾

그리하여 國富를 거저먹기만 하는 遊民化된 양반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야유는 성호학과 보다 더욱 가혹하였고 문학적이었다.⁽⁹⁾

이와같은 遊民化된 兩班貴族들을 도둑놈들로 몰아부쳐 가혹하게 풍자한 것은 人間平等思想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北學派의 思想에서는 「利用厚生」에 도움이 되는 思想이나 政策은 모두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朝鮮朝의 고루한 華夷的 名分論에 의한 鎖國主義를 배격하여 民族主義와 開國主義 立場을 표방하였으며 또 人間平等原理에 입각한 새로운 近代의 人間觀과 學問觀 및 職業觀을 제창하였고 나아가서는 利用厚生과 國防論을 一體적으로 파악하여 富國強兵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北學思想에서는 우선 朝鮮을 폐쇄된 「小中華」로 여기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

風] 등은 당시 淸朝의 文物에 접한 人士들이었다. 이들 北學派人士들은 階級的으로 不遇하던 庶民에 속하는 이가 많았으며, 西人一老論系의 出身이 많았다. 實學派가 대개 政爭에 不遇하던 南人學者들로 이루어진 사실과 對照가 된다. 이와 같이 實學에 참여한 人士들의 社會成分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思想이 近代의 改革意慾에 불타올른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8) 北學派가 「書經」의 三事 즉 「正德·利用·厚生」중 특히 「利用·厚生」을 강조한 것은 이미 虛學化된 朝鮮儒學의 通儒로서 「正德」편중의 흐름에 대한 비판에서였다. 따라서 그들은 「利用」→「厚生」→「正德」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였다.

朴淵源은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 正其德矣」라든가 朴齊家의 「夫利用厚生……一有不修則」·「侵於正德……今民生曰困·財用日窮·士大夫其將神手而不之救歟」라고 한 것은 결국 利用厚生에 의한 民生과 國家財政의 救濟없이 는 正德의 具現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朴齊家 北學議 自序)

(9) 朴淵源은 그의 著作을 통하여 遊民化된 土族 즉 兩班들을 「盜耶」(「兩班傳」) 「蝗蟲」(「閔翁傳」) 「儒者諛也」(「虎叱」)라고 풍자하고 그 허식과 위선을 폭로하였으며 朴齊家는 「夫游食者·國之大蠹」(貞菴集) 文集卷三) 즉 대저 놀고 먹는 자는 나라의 큰 좀(蠹)이라고 풍자하고 있다.

나라 그 기야를 해의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自高自大的 小中華意識에 안주하고 孔孟의 道에만 고착된 士大夫들을 「우물안 개구리·밭의 배추벌레」(蛙井蚡田·「朴趾源」)라고 야유하였고 「他國을 理解함으로써 自己를 깨우침」(因彼而悟己 「朴齊家」)을 강조하였다. 自己에 盲目的이고 他者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일수록 實은 自己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華」와 「夷」의 差別없이 他를 直觀한 北學派는 그것과의 對比에서 또는 對決에서 自己를 認識하고 朝鮮을 깊이 認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朴趾源은 그 門下生인 朴齊家の 著 「北學議」에 기고한 序文에서 모든 人間 그 자가 設사 設은 者건 下人이건 모든 外國 그나라가 設사 夷狄이라 하더라도 배울만한 長點이 있다면 이를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것 이것이 學問의 道라고 하였으며 배우는 데는 人間에 대한 年齡이나 身分의 差 또는 他國에 대한 華夷의 名分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¹⁰⁾

이러한 새로운 學問觀에서 우리는 당시의 朱子學的 名分觀念을 초월한 自由스런 探求精神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學派의 華夷의 名分論을 正面으로 배격하는 思想의 根底에는 當代에서 到達한 「地圓 地轉說」⁽¹¹⁾을 근거로 하는 科學的 宇宙觀과 世界地圖에 의한 새로운 世界認識이 흐르고 있었다. 本來 「華夷」의 世界觀은 「天圓地方說」을 근거로 하여 世界를 中原과 邊境으로 區分함으로써 成立하는 說이었다. 그러나 洪大容은 世界各國을 多元的·相對的으로 인식과약함으로써 華夷의 世界觀 또는 內外之分을 배격하였다. 洪大容은 「中國人은 中國을 正界로 삼고 西洋을 倒界로 삼고 西洋人은 西洋을 正界로 삼고 中國을 倒界라고 하나…… 橫(界)도 없고 倒(界)도 없으며 다같이 正界인 것이다.」⁽¹²⁾라고 주장하였다.

즉 둥근 地球上에서 사람들은 자기 自己를 正界로 하고 남을 橫界 또는 倒界라고 하나 기실은 橫界도 없고 倒界도 없고 다같이 正界라고 하는 世界認識의 속에서는 「華」와 「夷」의 準별에 의한 上下·貴賤·內外라는 階序의 名分秩序는 결국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世界의 中心(中華)과 사방(四夷)이 성립할 과학적 근거도 무산되지 않을 수 없다.

洪大容은 이와같은 科學的 世界觀에서 各國家 및 各民族間의 平等한 國際關係에까지 논급하여 「 하늘에서 이를 본다면 어찌 內外的 구별이 있겠는가. 이로서 자기는 그 사람을 親하고 자기는 그 君을 높이고 자기는 그 나라를 지키고, 자기는 그 습속을 편하게 여기니 華와 夷는 하나이다. (華夷一也)」⁽¹³⁾라고 주장하였다.

(10) 燕岩集卷之七「北學議序」

(11) 西學의 天文學과 世界地圖가 淸國을 통해서 朝鮮에 紹介되어 이미 李瀛은 「地圓說」을 주장한 바 있었고 洪大容은 地轉說을 처음 주장하였다(燕岩集 卷之十四「鶴汀筆談」)

洪大容은 「地塊는 一日一轉하고 地周九萬里 一日十二時限에 돌기 때문에 震電과 같이 빠르고 包丸과 같이 급하다……」고 하였다. (「湛軒書」內集卷四·補遺「豎山問答」)

(12) 「湛軒書」內集卷四 補遺「豎山問答」 pp. 331-332.

(13) 洪大容 前掲「豎山問答」 p.362 그의 思想의 基底에는 다음과 같은 人間平等觀에서 출발하여 各國 相[互]間 및 各國人民間의 平等原理가 흐르고 있었다. 즉 「均是人也」→「各親其人」, 「均是君主也」

이와같은 北學派가 강조한 「華夷一也」의 世界觀은 華와 夷와의 수직관계를 水平關係로 전회시킴으로써 전통적인 中國中心의 東亞儒敎文化圈內에서 「小中華」를 自稱하는 淸韓宗屬關係를 打破하고 國家自立思想과 萬國公法的 國際秩序를 土臺로 하는 近代의 民族主義意識을 고취하는 思想的 契機가 되었으며 아울러 先進外國의 文明을 自主的으로 섭취하는 自主的 採西의 近代化改革을 위한 思想의 大前提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國內的으로 班常士庶의 身分的 秩序를 否定하는 近代의 人間觀과 能力本位의 職業觀을 攄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人間觀과 職業觀에 관하여 살펴보면 北學派 實學者들은 人間平等觀의 基礎에서 封建의 身分制度를 배격하고 있다. 또 身分과 職業의 名分論의 固定化因習도 배격하고 있으며 四民(士·農·工·商)은 같은 水準의 職業으로서 「士」와 「庶」와의 上下關係가 있을 수 없고 「庶」內에서도 農을 本으로 工·商을 末利로 보는 農本主義的 本末思想에 의한 職業上의 貴賤觀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14)

北學派의 主要관심은 四民各層의 모든 身分階層의 勞力과 精神的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動員하여 生産과 技術의 發展에 寄與하고 그것이 富國強兵에 이바지하기 위한 制度로 改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人材登用に 있어 門閥·地閥의 差別的 障害나 科學에 의한 無計劃的 資格制 배출 등은 결국 遊民層의 擴大와 黨爭의 激化를 초래한다고 해서 신랄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各個人의 能力本位로 人材를 登用할 것과 職業配置의 適材適所로 生業이 종사케 하여 富國強兵에 이바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立場에서 兩班士族의 學問은 科學試驗을 위한 學問이 아니고 政治·經濟·軍事·科學·農業·商業·手工業의 改良과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實用的 學問이 되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한 것이며 아울러 科學制度의 改革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北學派는 富國強兵策으로서 利用厚生과 國防論을 一次的으로 파악하여 產軍一致의 사상을 展開하였으며 나아가서는 積極的으로 船制를 개선하여 國內船路에 利用할 뿐더러 外國과의 平和의 通商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北學派의 富國強兵策은 忠貞의 격조를 비롯하여 柳馨遠에서 丁若鏞에 이르는 實學派 經世思想家들이 田制 및 稅制의 改革에 의한 國家財政의 充實과 兵農一致思想에 의한 兵制의 整備를 주장하는 등 農本主義思想을 벗어나지 못하는 制約性을 지니고 있었던 점에 비하여 보다 近代的이며 積極的이고 開放的인 重商主義의 立場에서 利用厚生에 의한 「兵之本」과 「兵之末」의 併進策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船制改善과 海外通商策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15)

→ 各尊其君, 「均是邦國也」→「各守其國」, 「均是習俗也」→「各安其俗」

(14) 湛氏書·內集卷四·補遺「林下經綸」「其下係四民·而遊衣遊食者·官有常刑·爲世大戮 有才有學則 農賈之子·坐於廊廟而不以爲僭·無才無學則公卿之子 歸於輿僮而不以爲恨……」

즉 「四民의 身分의 秩序에 관계없이 遊衣遊食者는 嚴罰할 것. 農民이나 商人의 子弟라 하여도 有才有學이면 廟堂에 올라 政治에 參與해야 할 것이며 公卿의 子弟라 하여도 無才無學의 者는 輿僮을 미는 身分이 되어도 원망하여서는 안된다.」

(15) 北學派外編「兵論」「兵必寓於 民生日用之內……故樓櫓干盾 坐作擊刺者 兵之末也 天地之內 才能

이상 논쟁한 北學派實學者들의 일련의 사상은 18世紀末 19世紀初의 思想傾向으로 보아 확실히 社會通念에 도전하는 異端이었고 星湖學派系의 實學思想에서조차 볼 수 없는 尖銳한 것이었다. 이들은 거의 朴齊家·李德懋·柳得恭같은 庶孽出身이거나 혹은 身分이나 黨派가 不遇한 限界人士들로서 마침 開明君主인 正祖의 비호(庇護)와 異例의 重用으로 간신히 官職까지 보전하면서 近代의 思想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나 당연히 反對派의 반격과 보복이 귀머린 것이다. 즉 1800년 正祖의 흥거를 고비로 西學邪教와 實學思想家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北學派에 대한 迫害도 가중되면서 鎖國政策이 강화되어 갔다.

이 時期에 宗教的인 탄압과 思想的인 迫害 그리고 政治的인 鎖國政策이 강행되는 가운데 朝鮮朝末期의 實學者 金正喜(秋史), 李圭景(五洲), 許傳, 崔漢綺(明南樓), 金正浩, 朴珪壽, 申觀浩 등이 나타나 開化思想과 近代意識의 擴大에 기여하였으며 또 民亂이 발발하여 近代의 政治意識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金正喜(1786~1856)은 「阮堂先生全集」 그리고 李圭景(1788~?)은 「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하여 東亞古今의 新知識을 소개하였고 특히 金正喜는 清末洋務運動의 誘因이 되고 韓國의 開化思想形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魏源著 「海國圖志」⁽¹⁶⁾를 必須의 책이며 爲政者들은 「圖志」에서 주장하는 바를 채택하고 實施하여야 하고 그 著者 魏源은 空談을 일삼는 訓詁學에서 벗어나 實事求是의 새 學風을 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또 崔漢綺(1803~79)는 天文·地理·農學·醫學·數學 등 學問全般에 걸쳐 關心을 가지고 많은 著述을 통하여 西歐의 近代 新文化輸入의 新境地를 개척하였고⁽¹⁸⁾ 그의 親友 金正浩는 地理學者로서 「大東輿地圖」 「大東地志」를 刊行하여 공헌하였다.

한편 어느 程度의 近代의 性格을 띤 民亂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중건의 수많은 대소의 國內 반란이 擧皆가 王朝革命이나 王位爭奪 또는 政權爭取를 위한 성격이 아니면 失勢에 대한 개인적 불평이 동기가 된 데 반하여, 이후의 民亂은 政治에 대한 大衆의 不平이나 被支配階級の 불평을 바탕으로 組織化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洪景來亂(1782~1812)은 亂을 先導한 洪景來의 내심의 理念이야 어떻든, 地方差別·文武差別·嫡庶差別·

之本 利用之器 兵之本也」

즉 戰力은 民生日用之內라는 認識에서 出發하여 利用厚生에 의한 「兵之本」은 天下의 才能士와 利用하는 器械을 日常準備하는 것이고 「兵之本」은 直接的인 軍備나 訓練을 日常的으로 充實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豫備의 戰力이 總體的으로 兵의 본이고 直接的인 軍備는 兵의 未이라고 하는 產軍一致論을 주장하였다.

(16) 「海國圖志」는 清末의 學者 魏源(1794~1856)에 의하여 著述되어 中國·韓國·日本·東洋三國에 큰 影響을 준 책이다. 韓國에서도 이 책은 徐繼畬가 지은 「瀛環志略」과 더불어 1870~80年代의 開國 혹은 開化思想家들로부터 하여금 海外知識을 갖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參) 光麟 韓國開化史 研究 p.2 一湖開 1970, 李瑄根 韓國史 p.566 最近世篇 乙酉文化社 1961)

(17) 「阮堂先生全集」 卷11紀年續編 「海國圖志是必需之書 在我似他家數寶 紅舶或有涉境之時 在重門擊柝之義 又何可少虛見 占見國審勢者……不守訓詁空言 專以寔事求是爲主……」(圖志는 必須의 책이며 西洋軍艦이 우리境界를 넘어와 中門을 치는데 가만히 엿볼수만 있겠는가……)

(18) 朴鎭鴻 「崔漢綺의 經驗主義」 亞細亞研究 8卷 4 1965年刊行 高麗大學校 亞研.

黨弊 및 威權專橫과 兩班弊習에 대한 반항을 표방하여 이를 民衆에게 호소하고 선동한 것으로, 비록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近代의 政治意識의 발현임은 분명하다.

이와같이 19세기 以來로 鎖國政策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實學者와 그 作品을 통한 開化思想이 소개되고 近代의 民亂이 발발하기도 하였으나 그 社會的 影響은 아직 微微한 것이었다. 결국 19세기의 70年代 즉 開港前에 이르기까지는 傳統的인 衛正斥邪思想이 思想界의 主潮를 형성하였던 것이었다. 衛正斥邪思想은 그 反侵略的 性格에도 불구하고 體制의 近代化改革을 완고하게 반대하고 所謂 「小中華」의 誇大妄想에 사로잡혀 淸國·日本·西洋을 모두 半人間半禽獸視하여 外國文明의 접촉과 受容을 거절하였으며 科學的 側面과의 식별도 없이 「邪學」개념의 부당한 확대에 의하여 西學研究나 西洋事情研究자체를 거의 완전히 질식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政治的 次元에서의 鎖國과 思想的 次元에서의 斥邪가 표리일체하게 결합되어 外部世界로부터의 고립화를 초래하였고 近代의 意識의 擴大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韓末의 사상적 폐쇄의 상황은 朝鮮의 隣國인 日本이나 淸國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더욱 절기하였다. 이리하여 西洋近代文化가 직접적으로 韓國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制約이 있었고 그보다 오히려 지배적으로는 中國과 日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639년에 鎖國을 완성한 후에도 和蘭과는 通商을 하고 基督教關係以外的 科學技術方面의 洋書輸入을 許可하였으며,⁽¹⁹⁾ 특히 日本에서 文化開化論이 思想的 土臺를 닦은 福澤諭吉는 그의 主著 「文明論之概略」을 1875년에 刊行하여 日本의 文明開化思想의 形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더러 그와 접촉한 金玉均 朴泳孝 俞吉濬 등에 큰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中華思想의 本山인 中國도 阿片戰爭(1840~1852)의 쓰라린 試鍊을 겪은 후부터 西洋諸國의 艦船 및 武器의 威力과 그 背後에 잠재한 科學技術面의 優越性을 간파하고 所謂 「夷」로부터 배울 必要를 통감한 것이다.

특히 淸末의 洋務思想 및 洋務運動은 阿片戰爭이후 西洋近代文明 특히 科學技術의 우수성을 깨닫고 中國의 전통적 價值觀은 그대로 지속하되 西洋的인 수단은 채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西洋의 科學技術文明을 습득하여 富國強兵을 이룩하려는 思想體系 및 運動으로 韓國의 開化思想의 形成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思想을 대표하는 저술로서는 前述한 魏源이 1942년에 지은 「海國圖志」, 徐繼畬가 지은 「瀛環志略」 鄭觀應 혹은 鄭官應이 지은 「易言」등이 있다. 물론 中國에서는 일찍이 야소고會를 教師등에 의한 西洋自然科學의 紹介가 있었으며 淸來 洋務運動은 1860年代부터 淸朝高官들에 의하여 本格的으로 着手되었다.⁽²⁰⁾

(19) 沼田次郎 「洋學傳來の歴史」 至文堂 武田楠雄 「維新과 科學」 岩波新書 參考

(20) 61年代 洋務運動의 一環으로 外國語 및 科學技術의 習得을 위하여 北京의 同文館(1862) 上海에 廣方言館(1863)이 設立되었고 近代兵器工場으로서 曾國藩은 安慶에 軍械所(1862) 李鴻章은 上

「海國圖志」의 執筆目的은 「以夷制夷」換言하면 「夷」를 막기 위해서는 西洋의 長技를 果敢하게 採用하여 洋夷에 對抗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그리고 西羊의 長技는 戰艦과 火器와 養兵·練兵의 세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圖志는 世界의 歷史와 地理 즉 海外知識을 소개하는 世界地理書인 동시에 洋夷의 侵攻을 막는 方法을 示술한 國防問題의 經世書이었다. 이러한 思想은 韓國에 있어서도 北學派에 의하여 이미 13세기 後半期에 確立되었음을 앞서 論한 바와 같다. 다만 19세기 前半期에 정치적으로 붕쇄당하였을 뿐이다.

「海國圖志」가 韓國에 傳來되어 憲宗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實學者 및 開化先驅者들과 그리고 朝廷의 여러 臣下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진 것은 19세기初의 憲宗·哲宗年間으로 부터 高宗初年에 걸친 時期인 것 같으며,⁽²²⁾ 이로서 金正喜·李圭景·許傳·崔漢綺·朴珪壽·申觀浩 등 末邦의 實學者들이 읽었으며 특히 朴珪壽는 海國圖志를 연구하고 그 門下에 출입하던 金允樞·俞吉濬·金玉均들에게 전하여 開化思想에 눈뜨게 하였으며 吳慶錫이 中國에서 가져온 「海國圖志」는 瀛環志略과 함께 劉大猷·金玉均·洪英植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瀛環志略은 徐繼畬(1795~1875)가 저술한 世界地理書로서 阿片戰爭이 끝난 다음해인 1853年에서 5年¹¹에 걸쳐 各國人의 地圖와 書籍을 참고로 하여 1848년 10卷으로 完成하고 1850年에 刊行하였다.

이상의 功勳들이 大體로 開港前에 國內에 소개되어 近代意識의 擴大에 기여한 것이다.

海에 製砲局(1862) 江南製造局(1865) 南京에 金陵機器局(1865)을 이밖에 福建에 船政局(1866) 天津에 機器局(1867)등이 設置되었다.

(21) 海國圖志叙 「是書何以作 日爲以夷攻夷而作 爲以夷款夷而作 爲師夷長技 以制夷而作……」

(22) 許傳生齋集 卷16 海國圖志幀

金永鎬 開化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年 pp. 275-276.